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이야기로 만나는 공익신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밝은 세상



이야기로 만나는 공익신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밝은 세상

이 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고인 등의 신분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목차

06

책을 펴내며

공익신고자 보호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08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기한 없는 고춧가루

12

무자격자 비아그라 판매 공익신고

자유로에서 공익을 외치다

16

불법 문신 시술 공익신고

눈썹 스펙

20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공익신고

남의 일

24

고압가스 불법 판매 공익신고

냉매 누설

28

공장 유독가스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공익신고

작고 소심한 변호

32

석면 등 건설 폐기물 무단 배출 공익신고

1급 지킴이

36

유사 수신 행위 공익신고

전문가적 견해

40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공익신고

현장 회의

44

원산지 표시 위반 공익신고

김치는 어디서 왔는가?

48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공익신고

초음파 공격

52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익신고

통행세

56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두 사람의 식탁

60

무단 투기 신고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고기 무덤

64

산업재해 은폐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공익신고자 보호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해 사회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익 침해 행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국민의 용기 있는 양심이라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신고자 보호입니다.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바로 <제보자>입니다. 주인공은 왜곡된 현실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배신자라는 사회적 비난으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실도 영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진실을 밝히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힌 사람이 철저히 보호된다면,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공익 침해 행위를 목격할 경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지요. 두려움 없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을 맞이했습니다. 공익신고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함께 필요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보았을 때 양심에 따라 기꺼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용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각 기관의 공익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과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 책은 그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 15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담은 것입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익 침해 행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신고를 더 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관심 속에 공익신고 제도가 정착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용기 있는 양심이 응원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양심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 제도와 신고자 보호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기한 없는 고춧가루



“애, 고춧가루에서 냉동실 냄새가 난다.”

친정 엄마가 고춧가루 봉투를 열고 쿵쿵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냉동실 냄새라니?”

선희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다 말고 되물었다. ‘냉동실 냄새’라는 게 세상에 있는 냄새였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어도 선희는 김치를 담글 때면 친정 엄마를 호출한다. 아무리 레시피를 따라 해도 친정 엄마의 ‘손맛’을 따라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손맛’이란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선희에게는 실존하는 맛이였다.

“냉동실에 오래 두면 뭐든 색깔이 거무튀튀해지고 냉동실 특유의 냄새가 배잖니. 이런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그면 때깔이 나지 않아 못 써. 이런 걸 대체 어디서 샀니?”

고춧가루는 어제 동네 슈퍼마켓에서 산 것이였다. 포장은 말끔했지만 어딜 찾아봐도 유통기한이 없었다. 엄마의 지청구까지 듣고 나니 괜스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선희는 제조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포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색깔도 탁하고 뭐랄까...냉동실 냄새가 나요.”

“냉동실 냄새라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냉동실 냄새’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엄마 ‘손맛’처럼,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맛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다. 알면서 일부러 모른 채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이거 오래 묵은 고춧가루에 포장지만 바뀌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희의 말에 직원은 발끈했다.

“냉동실 냄새라니, 있지도 않은 냄새 갖고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대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냉동실 냄새가 나니까 난다고 말하는 건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잡아떼는 것도 분했고, 선희를 블랙 컨슈머 정도로 치부하는 말투에도 화가 났다. 선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침해 행위로 상담을 신청했다.

“냉동실 냄새라면 식자재를 냉동실에 오래 묵혀둬서 밴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제조일자와 업체명은 확인해보셨나요?”

조사관은 제조회사명과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 무엇보다 단번에 냉동실 냄새가 무엇인지 알아봐줘서 고마웠다. 선희는 조사관의 안내대로 온라인으로 신고했다. 얼마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조사관과 감독관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회사의 냉장창고를 찾아가 꼼꼼히 조사했다고 했다.

“제조업체 냉동실에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넘는 김치와 고

춧가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포장을 바꾸는 수법으로 유통해왔던군요. 다른 회사 제품을 유통시키려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도 않았고요. 경찰청에 이첩해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선희는 별것 아닌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냉동실 냄새 같은 걸로 신고해도 되나 망설였는데, 신속히 처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하죠. 신고해주신 덕분에 더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사관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냉동실 냄새가 나는 게 맞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냉동실 냄새’가 통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선희는 더없이 기뻐다.

{ 꼭 확인하세요!

소비자는 제조자, 유통기한, 식품 성분 등 상품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권리에 반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법 행위다.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 없이 다른 업체가 제조한 김치와 고춧가루를 업체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것 또한 위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자유로에서 공익을 외치다



수철은 자유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1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1톤 트럭은 쉽게 눈에 띄었다. 실은, 눈에 띄지 않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었다. 차들만 췌췌 달리는 깜깜한 자유로 한가운데에 화려하다 못해 농염한 빛을 뿜는 전구로 한껏 치장을 한 1톤 트럭이 서 있었다. 까만 화면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팝업 창 같은 모습이었다. 작은 짐칸에 붙어 있는 광고판에는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의 다리가 그려져 있었고, 한가운데에 ‘성인용품’이라는 네 글자가 박혀 있었다. 수철은 갓길을 따라 쭈뼛쭈뼛 트럭까지 걸어갔다. 자정이 넘은 이 시간에 자유로 갓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수철은 수십 번도 더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철은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꽃 중년이니, 강한 중년 남자니 하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귀에 거슬렸다. 세상 남자들이 죄다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데 웬지 자신만 시곗바늘 위에 매달려 꾸역꾸역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40대에 접어들고 나서도 한동안은 몸의 나이를 실감하지 못하던 수철이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 흔히 말하는 고개 숙인 남자가 돼버렸다. 일시적인 것이려니 하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신경이 쓰였다. 남들 눈을 피해 비뇨기과에 가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수철은 고개를 푹 숙이고 비뇨기과에 드나드는 자신의 모습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혼자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녀석이 눈을 찡긍하며 자유로에 네가 딱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서 한 번 가보라고 했다.

트럭 앞에서 머뭇대는 수철을 보고 멀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내가 다가왔다.

“뭘 찾으시나?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게 있나 이것저것 구경 좀 하시지 그러우?”

“아니..., 그게 아니고...”

“뭘 특별히 찾으시는 게 있나...?”

“비아... 저, 비아그라...”

“비아그라? 만 원에 두 개.”

사내는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였다. 수철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냈다.

그렇게 비아그라를 손에 넣었지만 그 약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질어질한 것이 부작용이 난 것 같았다. 수철은 큰맘 먹고 비뇨기과를 찾아갔다.

“선생님의 성 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술,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하면 점차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살짝 웃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괜히 아무 데서나 비아그라 사서 드시면 위험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꼭 의사에게 처방받아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철은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쑥스럽게 웃었다. 수철은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공익을 막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자유로에서 비아그라 같은 의약품을 팔며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런 무자격 판매자는 하루 빨리...’

신고서를 보내고 수철은 주머니에서 잘 접어놓은 비아그라를 꺼내 쓰레기통에 넣었다.



{ 꼭 확인하세요!

비아그라는 전문의약품으로 자격 있는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시중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비아그라를 사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무자격자가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이며 「약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눈썹 스펙



한동안 캠퍼스에서 자취를 감췄던 주희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주위의 이목이 단번에 집중됐다. 주희는 알 듯 모를 듯 외모가 바뀌어 있었다. 그것도 몹시 세련되게.

“어머, 너 취업 성형했구나. 코 하고 눈 했네. 피부 레이저 시술도 받았고. 맞지? 견적 좀 나왔겠는데?”

누군가 주희 면전에서 콧 짙어 말했다. 주희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말했다.

“맞아. 이거 하려고 1학년 때부터 알바를 몇 군데나 뛰었는걸.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때, 공부만 한다고 되겠니? 외모도 스펙이란 말, 몰라? 수진이 너, 너도 스펙 좀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아?”

주희에게 쏟아지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로 향했다. 수진은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랐다.

“나쁜 계집애.”

수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못생겼으니 손 좀 보라’는 식의 말을 그렇게 시침뚝 떼고 하다니.

거울을 찬찬히 뜯어보면 볼수록 얼굴이 아쉽긴 했다. 통통한 볼살은 귀엽긴 해도 날렵해 보이지 않고, 도톰한 콧방울 역시 북스럼게 보이긴 해도 어쩐지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당장

압구정동 성형 거리로 달려가고 싶지만 수진에겐 주희처럼 일찍이 알바를 해서 모아놓은 목돈 같은 건 없었다. 목돈은커녕 당장 취업해서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할 처지였다. 내키지 않았지만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썹만 바뀌어도 인상이 달라져. 너처럼 흐릿한 눈썹은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 눈썹 스펙이라도 올려야지.”

주희 말을 들으니 유난히 눈썹이 거슬렸다.

“돈이 걱정이면 피부 관리실이라도 가봐. 성형외과보다 저렴해.”

주희의 말에 수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동네 피부 관리실로 향했다.

피부 관리실 원장은 수십 개의 작은 바늘들이 놓인 방으로 수진을 안내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문신을 한다고 했다. 수진은 시술대에 누워 눈을 꼭 감았다.

다음날 거울을 본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술을 받은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노란 고름까지 잡혀 있었다. 당장 피부 관리실 원장에게 항의했지만 별나게 살이 약하다는 등, 금방 나을 거라는 등 건성으로 답하면서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다. 속상한 수진은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 부작용이 생겼다고? 나한테 전화를 걸면 어떡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해야지.”

성형의 여왕답게 과연 주희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알미운 아이다. 수진은 바로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고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건 막을 수 있을 테니까.

“무면허 시술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으면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요. 이번 건은 무면허 시술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 되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연락해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통화를 마친 수진은 모자를 꼭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이젠 도서관에 가서 진짜 스펙을 쌓아야지.’



{ 꼭 확인하세요!

레이저를 이용한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다. 뷰티 숍에서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하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남의 일



“세상에나, 눈이 왔다고 리조트 지붕이 저렇게 무너지는 게 말이 돼?”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경주의 한 리조트가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신입생 환영식을 하던 대학생 1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노모도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옮겼다.

저녁 밥상 앞에는 박 씨와 아내, 노모 셋뿐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영이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 갔기 때문이다. 진영이 생각에 아내와 노모는 더욱 남의 일 같지 않은 모양이다.

“어머니,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서 리조트를 지었대요. 부실 시공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건축이나 안전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귀가 어두운 노모를 위해 아내가 방금 들은 기자의 멘트를 되풀이해 설명했다. 아내와 노모의 탄식에도 박 씨는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다.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과 탈세를 위해서입니다.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보도가 이어졌다. 박 씨는 슬며시 베란다로 나와 담뱃갑을 꺼냈다.

박 씨는 건설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한다. 시공업체가 건설 면허를 대여해 일한다는 것이 이 바닥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큰 사건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박 씨는 공연히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면허 대여가 불법이니 뭐니 입바른 소리를 했단 밥줄 떨어지기 십상이다. 남의 일이거니, 생각하고 눈 감을 수밖에.

그때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예? 우리 진영이가요?”

아내의 새된 목소리가 베란다까지 울렸다. 박 씨는 당장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뭐? 우리 진영이가 뭐? 무너졌대?”

박씨가 허둥지둥 아내의 전화를 빼앗았다.

“제, 제가 애비 됩니다. 무, 무슨 일이라도?”

진영이 학교의 과대표였다. 진영이가 발목을 삔곳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진영이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린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났다.

박 씨는 베란다로 나가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국민권익위원회였다.

“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

까? 무자격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장 계약서와 공사이행보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어려운 결심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할 기관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신고 내용을 정리해 접수한 후 한숨 돌렸다.

‘우리 진영이가, 우리 진영이 같은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잘한 거여, 잘한 거여…’

오늘 밤에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꼭 확인하세요!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냉매 누설



“우연 씨, 에어컨 좀 틀지.”

현장 점검을 하고 돌아온 김 부장이 손 부채질을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섰다. 김 부장은 유난히 더위를 못 참는다. 아직 초여름인데 벌써부터 에어컨 타령이다. 우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에어컨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아, 왜 이렇게 더워. 우연 씨, 에어컨 켜 거 맞아?”

김 부장은 연신 손 부채질을 해가며 성화를 댔다.

“부장님,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서 대리가 우연 씨에게 눈을 찡긐하며 말했다. 서 대리는 우연 씨와는 비밀 사내 커플이다.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슬쩍 구원의 손길을 서로에게 내미는 게 사내 커플의 묘미라지만, 서 대리는 너무 티를 내서 우연 씨를 곤란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온도 설정 제대로 한 거야?”

잠시 후 김 부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우연 씨를 재촉했다. 우연 씨는 다시 에어컨 앞으로 가 설정 온도를 확인했다. 18℃였다. 현재 실내 온도는 25℃. 김 부장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아무래도 냉매 가스가 다 된 건 아닐까요?”

불뚝이 우연 씨에게로 튈까 봐 서 대리는 안절부절못했다. 이러다간 사무실 직원들에게 둘 사이가 들통나는 건 시간문제였

다. 우연 씨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에어컨 초기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에어컨 냉매 가스는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누설됐을지도 모르잖아. 냉매 가스 없이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컴프레서가 손상된다고.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우연 씨의 말에 이른 더위를 먹은 김 부장이 짜증을 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냉매 가스 파는 걸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또 서 대리였다.

“잠깐만요, 냉매 가스만 있다고 에어컨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매 가스를 다룰 줄도 모르면서. 냉매 가스는 사용 온도에서 액체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고압가스라서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곳에서 구입해야 하고, 냉매 가스의 충전이나 수리도 면허가 있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요.”

우연 씨가 툭 부러지게 대답했다.

“역시 우연 씨는 모르는 게 없다니까!”

서 대리는 감탄을 넘어 감동의 눈빛을 우연 씨에게 보냈다.

“게다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냉매 가스를 사면 나중에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연 씨가 일부러 차갑게 말했다.

“냉매는 우연 씨한테서 누설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부장이 손 부채질을 멈추고 두 사람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일부러 냉랭하게 굴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어느새 사무실은 시원한 냉기로 가득 찼다. 우연 씨의 두 볼만 빨갛게 달아올랐다.



꼭 확인하세요!

고압가스로 분류된 냉매 가스를 방호벽과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허가 없이 오프라인 매장이거나 인터넷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공익 침해에 해당하며, 특히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냉매 가스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작고 소심한 번호



김 씨는 공장 뒷문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인사과에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다. 아무래도 오늘도 틀린 듯하다. 그는 퇴직하기 전 대기업 시설 안전과에서 일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맡은 일은 해내고 마는 성격이지만 실적을 내세우는 일에는 서툴렀다. 그런 일이 몇 번 쌓이는 동안 상사들은 그의 해고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집 근처 작은 공장의 경비직이라도 취직을 하러 온 것인데 이곳도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

터덜터덜 공장 뒤편으로 걸어 나온 김 씨는 웬지 그냥 돌아가기가 섭섭해서 뒤를 돌아봤다. 그때 공장 뒤편에 있는 배관의 연결 이음 부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작은 하자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밴 그는 저절로 그곳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자세히 살펴보니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독가스인 것 같았다. 주위에 인가가 있어서 계속 유출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김 씨는 인사과로 다시 올라갔다. 조금 전 면접을 안내했던 직원에게 쭈뼛쭈뼛 다가갔다.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결눈으로 그를 슬쩍 보고는 하던 일에 집중했다.

“면접은 끝났는데요.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 공장 외부에 배관의 연결 이음 부분이 낡아서 가스가 새

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기가 오염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 씨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갔다. 가스는 여전히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까보다 더 심한 것 같았다. 아무래도 인사과 직원이 빨리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고, 안전과를 찾아가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 다시 인사과로 올라갔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했다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인사과 직원은 여전히 바빠 보였다.

“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해서…”

“아 참,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무튼 제가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직원은 급히 자리를 떴다. 김 씨는 멍쩍게 서 있다가 사무실을 나왔다.

이번엔 눈을 질끈 감고 지나치려 했지만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숫자판에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작고 소심한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신호가 가더니 수화기로 친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 저… 공장의 노후 시설에서 유독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익 침해 행위를 발견하셨단 말씀이시군요. 신고해주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 기관과 함께 조사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민이 많고 어려우시겠지만 신고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 숫자판을 한참 바라봤다. 작고 소심한 숫자들이 다정하게 그를 격려하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김 씨.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았다.



{ 꼭 확인하세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장 내 시설물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되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유독가스가 배출되면 환경오염이 발생해 공익을 침해하게 되고 공장 인근 거주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독가스를 방출하게 되면 사업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1급 지킴이



석규 씨는 지난달 고향 집으로 내려왔다. 짧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농사를 돕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고향 집에 내려와서야 창고에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 있는 게 새삼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예전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석규 씨의 집뿐 아니라 동네엔 슬레이트 지붕이 흔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석면은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자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슬레이트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석규 씨의 말에 아버지는 마뜩치 않아 했다. 이 집에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지금껏 살았는데, 발암물질을 지붕으로 이고 살아왔다니, 생각하기도 싫은 듯했다. 석규도 어릴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마당에는 나무와 슬레이트, 시멘트 등이 여기저기 적재돼 있었고 낮선 인부들이 바쁘게 오갔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인부들을 모아 슬레이트를 불판 삼아 삼겹살을 구웠다.

“아버지, 석면은 미세한 바늘과 같아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에 박혀 30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대요. 폐 질환, 폐암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고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여...?”

“그럼요, 아버지. 슬레이트는 철거할 때도 다른 폐기물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해요. 개인이 함부로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지나는 것도 삼가야 해요. 그만큼 위험한 거라고요.”

“뭐여? 지난해 외지 사람들이 펜션을 짓는다고 농가를 몇 채 헐고는 슬레이트를 그대로 농로에 버려놨는디 어찌냐?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다니, 아이고...”

석규는 당장 집 근처 농로를 확인했다. 아버지 말대로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있었다. 오래도록 방치해 둔 게 틀림없었다. 석규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상담했다.

“슬레이트를 포함한 건축 폐기물이 집 근처 농로에 버려져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집주인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집주인은 건물 대수선 공사 시 사전에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발생한 건설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주시면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석규가 집에 들어섰을 땐 마당이 시끌벅적했다. 아버지가 슬레이트 때문에 동네 어른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석규가 1급 고향 지킴이네, 그러.”

이웃 할배가 석규의 등을 두드렸다.

“어르신들, 어서 지붕부터 개량해야 해요.”

석규는 마음이 급했다. 석규의 마음과 달리 어르신들은 오래도록 석규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 꼭 확인하세요!

건물의 대수선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는 공사 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수선 공사를 할 때 석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문가적 견해



“얼마 입금됐냐?”

선재의 말에 명수는 뜨끔했다.

“어? 아직...”

“나도 아직 한 푼도 입금 안 됐어.”

“경제학도가 무일푼이구나.”

명수는 선재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어 미끄럼틀 계단을 발로 툭툭 찼다. 선재도 아무 말 없이 그네를 탔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유치원과 학교에 갈 시간에, 대학생 둘이 벤치에 앉아 있기에는 좀 멧쩍다.

“전자과 출신답게 계산 좀 해봐. 돈이 아직도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야?”

명수와 선재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두 녀석이 용케 같은 대학에 입학했다. 명수는 전자과, 선재는 경제학과였다. 저희들 힘으로 이룬 생애 첫 성취에 도취된 나머지 걸핏하면 서로의 전공 학과를 들먹이며 치켜세우는 게 녀석들의 버릇이다.

“난 네가 전자과라는 사실만 믿고 투자했다. 전자과는 계산이 확실해야 하니깐.”

“난 네가 경제학과라서 경제관념이 기본적으로 탑재됐을 줄 알았지.”

서로의 말에 둘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인터넷에서 먼저 정보를 입수한 것은 명수였다. 통신 장비를 임대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장비 임대 금액 50만 원을 투자하면 8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6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하면 36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로 스펙에 밀리고 경쟁에 밀리며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고 있던 명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명수는 이 기쁜 소식을 선재에게 알렸고, 두 녀석은 사이 좋게 100만 원씩 투자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차곡차곡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10주간 160만 원이라니, 한동안 둘은 얼굴만 마주쳐도 실실 웃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돈은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다.

“너 믿고 했는데, 어찌냐?”

선재가 우울한 낯빛으로 그네를 빼적빼적 탔다.

“투자금을 날려도 그건 어쨌든, 본인 책임이지.”

명수가 쓰디 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건 유사 수신 행위야 임마.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거라고. 이건 불법이야.”

선재가 갑자기 푹푹한 척을 했다.

“넌 역시 경제학도답다. 근데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 친

구 중에 이거 전공한 놈은 없냐? 전문가적 견해가 필요한데…”

명수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전공 타령을 했다.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지 뭐.”

“넌 경제학과 출신이 어떻게 그런 건 아냐?”

“그건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아는 거야, 임마.”

“그으래?”

명수는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 꼭 확인하세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 수신 행위라 한다. 건전한 금융 질서를 세우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 수신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 수신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이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누구든지 유사 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장 회의



“어이, 그만하고 일어나지. 억울하지만 어찌겠나. 할 수 없는 일이지.”

작업반장이 말렸지만 경주는 막걸리를 잔에 따랐다. 함바집은 텅 비었고, 주인은 길게 하품을 하며 두 사람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경주는 도저히 이대로는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반장님, 마지막 현장 회의인데 이대로 끝내겠습니까? 사장님, 여기 막걸리 한 병 더 주세요.”

“마지막은 왜 마지막이야?”

작업반장이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다.

“해고당했는데 무슨 수로 현장에 나오니까?”

공사 현장에서 쇠석기 기사로 일하는 경주는 오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며칠 전 사고 때문이었다. 경주가 운전하는 쇠석기가 돌연 엔진 고장을 일으켜 무거운 돌덩이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순식간에 방향을 돌렸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돌덩이가 인부들을 덮칠 뻔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쇠석기 엔진이 완전히 파손되었다. 회사는 경주에게 평소 장비 정비를 게을리 했다는 책임을 물어 해고를 통보했다.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장비를 점검해왔다고 자부해왔는데 한 번의 사고로 해고라니. 경주는 억울해 미칠 것 같았다.

그때 작업반장이 막걸리를 쭉 들이켜며 말했다.

“너 그동안 김 사장한테 주유 받은 거 맞지?”

김 사장이라면 직접 이동 주유 차량을 몰고 현장에 와서 공사 장비에 주유를 해주는 판매업자다. 시중가 대비 10% 정도 저렴해 공사장에 드나드는 차량이라면 대부분 김 사장에게 주유를 맡겼다.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김 사장 차를 몰래 한번 살펴봐라.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경유를 주유한다는 소문이 있어. 유류 탱크와 주유 밸브를 조작한다더라. 다른 현장에서 들은 얘기야.”

“뭐라고요?”

경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장 김 사장의 먹살을 쥐고 현장 소장 앞으로 데리고 가 자백을 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그 놈이 먹살 한 번에 모든 걸 자백하겠나? 사업장 유류 탱크에 보관 중인 석유를 주유 차량 탱크에 이동해 적재할 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서 짧은 시간 동안 몽땅 판매했기 때문에 단속에도 걸리지 않았다더라.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 전화부터 해보는 게 어때?”

경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차량 엔진이 파손되는 등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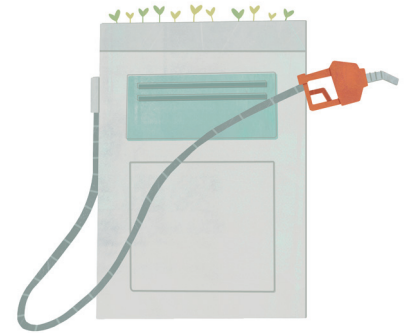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편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 접수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주는 전화를 끊고 잔에 남은 막걸리를 쭉 들이켰다.

“반장님, 오늘 현장 회의는 이걸로 끝내도 될 거 같은데요?”

“허, 허, 그럴까?”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은 느릿느릿 일어나 빈 잔을 치웠다.



{ 꼭 확인하세요!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부당하게 이익을 보려는 석유 사업자로 인해 연비 감소, 연료분사장치 부식 등 자동차 피해가 발생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이다.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가짜 석유 제품 판매 행위에 해당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치는 어디서 왔는가?



퇴근한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바람에 정순은 눈을 떴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깜빡 잠이 든 모양이다.

“저녁 차려줄까요?”

정순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식당에서 사 먹었어. 일찍 먹어서 그런지 출출하네.”

“당신, 식자재 원산지는 확인해봤어?”

정순은 얼마 전 마트 시식 코너에서 수입산 식자재를 무심코 집어 먹었다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원산지 표시에 유독 예민하게 굴었다.

“수입산이라고 다 나쁜 거 아냐. 먹을 만하다고.”

“수입산 식자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식당이 음식을 양심적으로 만들겠어?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고객 선택권을 존중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순이 먹거리에 유난을 떠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남편이 당장 배가 고프다는데 원산지 타령만 하는 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확인 안 해봤구나? 그렇지?”

“국내산.”

“밑반찬은?”

“국내산.”

남편은 숫제 돌림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다. 메뉴판에 적힌 원산지 표시에 눈길도 주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런 남편의 무심함에 정순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김치는? 김치는 뭐였어? 김치도 국내산?”

“국내산.”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습관을 들이라는 건데 귀찮게 생각하는 남편이 알뜰기까지 했다.

그때 냉장고를 뒤적이던 남편이 김치 그릇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당신, 이거 원산지는 어디야?”

“국내산.”

정순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김치는 당연히 국내산이었다. 친정 엄마는 늘 집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깐깐하게 고르니까. 그런데 가만 있자, 이번에도 그러셨을까? 확신이 서질 않았다. 요즘엔 수입산 배추가 많다던데….

“원산지가 장모님 댁 아니야? 장모님 댁 원산지?”

“…”

그렇게 오래 살림을 하면서도 여태 김치를 제 손으로 못 담그는 것이 정순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당신 말이 맞아. 원산지를 확인해야 안심하게 먹을 수 있지. 장모님 김치 맛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거든.”

아내의 입을 다물게 한 게 고소한지 남편은 찹찹 소리까지 내며 맛있게 먹었다. 정순은 전화기를 집었다. 친정 엄마에게도 확인을 해보아야 했다.



{ 꼭 확인하세요!

일반 음식점에서는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수족관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게 수산물을 구획하여 보관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 향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초음파 공격



“엄마, 이게 웬 거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주방 식탁에 놓인 식기세척기를 보곤 적잖이 놀랐다. 냄비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히 따져보는 엄마가 의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걸 들여놓다니, 전에 없던 일이었다.

“초음파의 압력으로 세척이 되는 거래. 한마디로 초음파 공격으로 그릇을 닦는 거라는데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

어디서 샀는지 성능을 직접 확인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가 하루 만에 지갑을 열 리 없다.

“옆집 주희 엄마가 파는 거야. 다단계 판매가 피라미드 판매와는 영판 다르다는 건 알지?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정희도 그쯤은 알고 있었다. 회원을 등록시킬 때마다 이익을 가져가는 피라미드 판매와는 달리 다단계 판매는 제품이 판매될 때만 이익이 생긴다.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지도 않고 하위 판매원 확보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근데… 생각만큼 속 시원하게 닦이질 않네…”

엄마의 말에 정희는 제품 설명서를 받아 들었다. 꼼꼼히 읽고 작동시켰지만 이물질들이 잘 닦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다시 해봤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정희는 당장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반품은 곤란합니다. 이미 두 번이나 사용해보셨다면서요.”

업체 직원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떡하나... 주희 엄마도 나 몰라라 하니...”

엄마는 정희의 눈치만 봤다.

“걱정 마, 엄마. 내가 알아볼게.”

정희는 마음 단단히 먹고 방문 판매 현장을 방문해 몰래 촬영했다. 시현하는 제품은 실제 판매 제품과는 모델부터 달라 보였다. 계약서를 달라는 구매자의 말에도 다음에 주겠다고 열렁뚱 땀 넘겼다. 무엇보다 할부는 안 되고 일시불로만 판매한다는 점도 수상했다. 정희는 구매자의 진술서까지 확보한 다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 판매 등록 현황에 등록 사실이 없네요. 무등록 업체 맞습니다. 무등록 업체에서 구매했을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없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조사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주희 엄마도 판매 수당을 55%나 준다는 말에 눈에 띄는 게 없었대네. 주희 엄마나 나나 그 놈의 초음파 공격에 완전히 당한 거지 뭐냐.”

반품도, 환불도 할 수 없게 된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한동안 주

방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보기 싫을 법도 하건만 엄마는 손님이 오면 꼭 저 세척기를 보여주며 사연을 얘기해주는 눈치였다.

‘우리 엄마, 무슨 불법 방지 홍보대사 같네.’

정희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 꼭 확인하세요!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등록한 후 영업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업체의 경우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아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무등록 업체로 의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후원방문) 판매등록현황을 조회해보면 된다.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행세



“이 대리, 이번 달 B 계열사에 지불하는 판매 장려금은 체크했나?”

김 부장은 이 대리를 회의실로 따로 불러 말했다. B 계열사는 그룹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B 계열사를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수십억 원의 판매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관행은 회사 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 ‘통행세’ 말씀이신가요? 알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통행세’라니? 김 부장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 통행세라는 이름으로 불리자 전혀 다른 일처럼 생각됐기 때문이다.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통행세 맞잖아요?”

이 대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다.

회의실을 나온 뒤에도 김 부장의 머릿속에는 한동안 통행세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다. 김 부장이 아는 통행세는 사무실에서 펜대를 굴려 일일이 계산을 맞추고 땀뻑한 파일로 정리해 캐비닛에 보관하는 일이 아니었다. 뒷골목에서 깡패들을 만났을 때 듣게 되는, 아주 불쾌한 말이었다.

중학교 시절, 뒷골목에서 마주친 깡패들은 어김없이 통행세를 뜯어갔다.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빼앗겼고, 없을 때는 맞았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하숙집 아주머니에

게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다.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나와 있는 아들을 보러 어머니가 왔다는 거였다. 가방을 놓고 한달음에 뛰어가는 길에 그 놈들을 만났다.

“야, 어딜 가? 통행세 내고 가야지.”

주머니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몇 대 맞고 지나면 될 일이었지만 그날은 맞기 싫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 것인가. 그는 힘껏 도망쳤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 곧 뒷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이 새끼가, 통행세를 내고 가야지, 통행세!”

그러고는 흠씩 두들겨 맞았다. 어머니는 시퍼렇게 멍든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정류장에서 한참 울었더랬다.

통행세, 통행세..., 중간 유통 단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계열사가 판매 장려금을 챙기는 일은 생각할수록 파렴치하게 느껴졌다. 지난날 그 파렴치한 깡패가 아직도 그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 같았다.

김 부장은 퇴근하는 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상 담했다.

“일명 통행세가 관행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사관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의 약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는 거였다.

“보상금요?”

“경제 민주화로 가는 길에 받는 일종의 통행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김 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통행세 트라우마가 싹 걷히는 순간이었다.



{ 꼭 확인하세요!

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는 사회정의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공익 침해 행위다. A 회사는 계열사인 B사를 중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싼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판매 장려금을 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러한 계열사 부당 지원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두 사람의 식탁



현정은 아이들이 먹은 시리얼 그릇을 치우고 아침상을 새로 차렸다. 남편은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새벽에 눈을 뜨고도 한참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된장찌개가 식고 겉절이 김치가 시들해질 때까지 아무런 기척이 없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야 할지 망설이던 차에 남편이 파자마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다. 현정은 된장찌개를 다시 데우고는 밥 두 그릇을 퍼놓고 식탁 앞에 앉았다.

“여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현정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걱정스럽게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금융 회사에서 대출 담당자로 일했다. 어느 날 중년 남자가 찾아와 신축 빌라 7세대를 담보로 총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내부 규정상 5억 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외부 감정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동일 번지 1개 건물을 세대별로 나누어 대출을 신청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는 빌라의 실소유자도 아니었다. 당연히 남편은 대출을 거절했다.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지점장에게서 대출을 해주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이번에도 남편은 거절했다. 뻔히 손실

이 예상되는데도 지점장의 지시를 따를 순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반대에도 대출이 실행됐고, 대출을 받은 남자는 이자를 계속 연체했다. 은행이 떠안은 손실은 약 1억5천만 원이나 됐다.

그 무렵 남편은 밤늦게까지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다. 아내는 마주 앉아 남편의 고민을 들었다. 남편은 지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당신, 지점장을 고발하고도 직장에 계속 나갈 수 있을까…?”

아내의 만류에도 남편은 결심을 꺾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 대출이 확인됐고 지점장은 해고됐다. 황당한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남편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 했지만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남편은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누군가 내게 잘했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해줬음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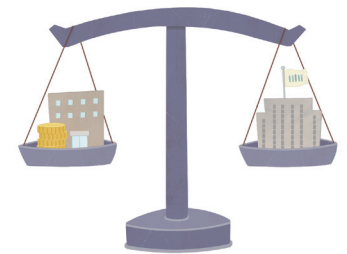
남편의 눈빛은 몹시 지쳐 보였다.

“잘했어, 여보.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거야.”

현정은 된장찌개를 남편 가까이 밀어놓았다. 남편이 희미하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다.

얼마 후 남편은 다시 직장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한 것이다. 정직 처분이 취소된 것은 물론,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래간만에 환한 미소를 짓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현정은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마웠다.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남편에게 유일한 동지가 되어줬기 때문이었다.

오늘 현정은 저녁 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삼페인을 사왔다. 오늘도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 꼭 확인하세요!

C 금융 회사는 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는 A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를 공익신고하고 회사로부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하여 보호 조치로 무기한 정직 처분 취소 및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C 금융 회사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A씨의 불이익 조치를 원상 회복시켜주기로 했다.

고기 무덤



초저녁부터 복대 할배는 선착장에 혼자 나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사납게 일어난 파도의 물줄기가 복대 할배의 등을 쳤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할배는 좀처럼 일어설 줄 몰랐다. 어촌 계장 마누라와 그 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들이닥치기 때문이었다. 어제 저녁 밥상을 막 물리는 참인데 느닷없이 대문을 차고 들어왔다. 어깨가 떡 벌어진 아들을 앞세우고 나타난 어촌 계장 마누라는 발을 쿵쿵 구르고 마루를 땡땡 치면서 악을 썼다.

“바다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처지에 어찌 남의 가장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데!”

집에는 할배와 할멈뿐이라 겁이 더럭 났다.

“어디, 이 동네에서 발붙이고 사나 봄시다!”

새파란 아들까지 나서서 눈을 부라리자 할배도 당하고만 있던 않았다.

“어촌 계장이면 바다 걱정을 쥔 먼저 해야 하는 사람 아니오. 그런 사람이 번번이 폐어망을 바다에 버리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난 말이오!”

얼마 전 할배는 밤바다에 혼자 나가 집어등을 켜고 조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퐁당’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배를 가까이 대고 집어등에 비춰보니 뱃머리에서 황급히 몸을 감추는 사람이 보였다. 어촌 계장이었다. 배에는 폐어망이 잔뜩 실려 있었

다. 폐어망을 처리하려면 톤(t)당 3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몰래 밤바다에 나와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폐어망을 바다에 버리면 고기 무덤이 생긴다는 걸 어촌 계장이 모를 리 없었다. 그렇잖아도 꽃게잡이가 시원찮아 빚더미에 올라앉은 어민들이 부지기수다. 할배도 올 초 꽃게 조업을 하기 위해 빚을 얻어 선원 한 사람당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 선금을 주고 고용했지만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했다.

날이 밝자마자 할배는 어촌 계장을 찾아가 폐어망을 바다에 버리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어촌 계장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기만 했다. 말려도 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생각다 못해 할배는 경찰에 신고했고 어촌 계장은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저 시퍼런 바다가 고기 무덤이 된다고 생각해보소.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 아니오. 우리 같은 어민은 모두 다 꼼짝없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으니...”

할배의 말에도 두 사람은 한참 소란을 피우다 밤늦게야 돌아갔다.

다음 날 복대 할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할배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축 번호를 설정해 핫라인을 만들고, 경찰

들이 한 달간 매일 네 번씩 집 근처를 순찰하도록 했다.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 나와 계세요? 할머니가 걱정하세요.”

김 순경이었다. 집에 들렀다 온 모양이다.

“날 찾으러 여기까지 왔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할아버지와 식구들을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러, 그러, 참 고마워.”

김 순경이 할배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김 순경을 앞세우고 할배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 꼭 확인하세요!



B씨는 어촌 계장과 OO협회 비상임이사 등이 인근 바닷가 및 아산에 멧게 껍질과 폐어망 등을 반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피신고자들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하게 되자 권익위에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권익위의 요구로 관할 경찰서는 신고자와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축 번호 설정으로 핫라인을 구축하고, 집 근처를 하루에 네 번씩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이들의 신변을 보호했다.

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김 대리가 커피숍에 들어서자 정 대리가 목발을 짚고 일어서며 말했다. 정 대리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이 다리를 하고 찾아온 거예요?”

정 대리가 묻는 안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짐작하면서도 김 대리는 정 대리 걱정부터 했다. ‘깁스를 풀려면 아직 몇 주 더 있어야 할 텐데...’

정 대리와 김 대리는 회사 입사 동기다. 김 대리가 한 살 위여서 정 대리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다. 정 대리가 존댓말을 하니 김 대리도 쉽게 말을 놓지 못했다. 입사 초기 같은 부서에 배치돼 함께 일했던 터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얼마 전 정 대리가 사업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김 대리가 제일 먼저 달려갔다. 설비 안전 점검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

김 대리의 말에 정 대리는 뜻밖의 말을 했다.

“조금 전 회사 담당자가 다녀갔어요. 아무래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거 같아요.”

“그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죠...”

정 대리는 체념한 것 같았다.

김 대리가 회사 전산망에서 우연히 고위 임원의 지시를 발견한 것은 그다음 날이었다. 재해율이 올라가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올라가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대리는 고민 끝에 관계 기관에 산업재해 은폐 시도를 신고했다. 회사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황당한 일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김 대리가 인력 효율화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병실에서 소식을 들은 정 대리는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김 대리를 찾아갔다. 커피숍에서 김 대리를 만난 정 대리는 모든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잠을 통 못 잤다고 했다.

“김 대리님, 회사를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하면 어떨까요?”

정 대리는 해결 방법까지 알아본 모양이었다. 김 대리는 우선 몸부터 돌보라고 만류했지만 정 대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다고 나섰다. 김 대리는 정 대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대리와 회사에 화해 권고를 해왔다. 김 대리는 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김 대리에게 대한 부당 평가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회사와 김 대리는 화해에 합의했다.

“정 대리가 두 팔 걷어붙인 덕분에 잘 해결됐네. 하하.”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술집에서 축하주를 마셨다. 김 대리의 일이 잘 해결되고 정 대리의 다리도 나아서 무사히 회사에 복귀한 기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 벗고 나선 덕분이죠. 뭐.”

“두 팔 걷고, 두 발 벗으니 다 잘된 거지. 자, 건배!”

두 사람은 맥주잔을 힘차게 부딪쳤다.



{ 꼭 확인하세요!

D씨는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회사가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익신고를 했다. 회사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에 대해 부당하게 평가해 이에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고가 공익신고임이 확인되어 신청인과 회사에 화해를 권고해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부당 평가를 철회했다.